



CARRIER NEWS

- Malaysia Airlines - 부루나이 항 화물기 서비스 개시 w.e.f. 6th September, 2017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9 월 6 일 부로 부루나이항 화물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라부안을 경유하여 Ferry 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스케줄은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 까지 화물 Truck service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라부안으로 화물기 진행 후, 라부안에서 부루나이로 Ferry 를 이용하여 Big size cargo 의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이나 진행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쿠알라룸푸르 - 라부안 화물기 스케줄
MH6102 (D3) KULLBU : 0500~1155
MH6052 (D5) KULLBU : 1020~1250

Email : info@cosmoSCM.com
Kataalk ID : carrie7665

- 대한항공 싱가포르발 - 인천행 Promotion Rate 적용 안내 (+500kg 이상)

KE648 (ETD1100~ETA1825) DAY 1,4,5,7
KE644 (ETD 2230~ETA0540+1) DAY 6,7
KE642 (ETD0130~0840) DAY 1,7

상기 flight 에 한하여 special rate 가 적용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단, 일요일, 월요일 출발 편은 주말 overtime 적용)

Email : info@cosmoSCM.com
Kataalk ID : carrie7665

SINGAPORE NEWS

- 스콧, 타이거항공과의 합병 완료

스콧은 2016년 5월부터 진행됐던 Tigerair와의 통합작업을 7월 25일 최종 마무리되며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놀룰루로의 취항을 비롯 장거리 노선을 추가하며 캐퍼시티를 15% 끌어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2018년 6월까지의 계획으로 아시아 노선 4지역 - 중국 하얼빈, 서말레이시아의 콰탄, 동말레이시아의 쿠칭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팔렘방 -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쿠칭과 팔렘방은 실크에어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데, 오늘 10월 29일, 11월 23일까지 각각 실크에어로부터 노선을 양도받을 것이라는데 싱가포르 항공 (SIA)의 모토 중 하나인 “capacity to demand”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를 경유하여 호놀룰루를 가는 노선도 검토중인데, 만약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장 강력한 장거리 비행을 하는 LCC인 Air-Asia와 바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콧은 이미 지난 달 아테레로의 장거리 비행을 시작하여 성장이 매우 빠른 LCC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콧의 영업이익은 2016/17년 약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5/16년의 3천 100만 달러보다 약 60% 상승하였습니다.

- 미리보는 창이공항 Terminal 4

수십 년 간 아시아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 온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2017년 말 4번째 터미널을 오픈합니다. 약 225,000 제곱미터 (축구장 27개의 크기)에 이르며,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은 1,600만 명으로, 이로 인해 창이공항의 총 승객 수는 기존 연간 6,600만 명에서 8,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국답게 터미널 4는 ‘빠르고 원활한 여행(FAST)’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셀프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무인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미래 공항 풍경의 자동화/도시화에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터미널에는 수십 개의 자동 체크인이 가능한 키오스크가 설치되며 얼굴 인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 백 드롭과 이민국 출입심사, 비행기 탑승까지 가능하게 하였고, 세계 최초로 단층 촬영 스캐너가 도입되어 보안 검색 시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여행객들은 카운터 오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체크인과 백드롭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이로 인해 까다로웠던 공항의 구조가 유연성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동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체크인 카운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미널 4에 취항 예정인 항공사는 대한항공, 케세이 퍼시픽, 베트남 항공, 그리고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 등이 있으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창이공항의 Terminal 4 런칭으로 인해 전 세계 공항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HARGES ADJUSTMENT UPDATE

- Cargolux airlines
Security Surcharge **INCREASED** w.e.f. 15th August, 2017 : **SGD0.20/kg**
- Lufthansa Cargo
Airfreight Surcharge **DECREASED** w.e.f. 3rd July, 2017 : **SGD1.28/kg** (previously SGD1.36/kg)
- CMA / CGA Document fee 조정 안내 w.e.f. 15th August, 2017
 - Surrender and B/L fee : 기존 SGD130 에서 **SGD140** 으로 인상 조정타 선사에서는 아직 정식 공문은 없으나 곧 SGD140 / BL 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더 다양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SMO SCM
<#001>

[Singapore | Malaysia | Vietnam]
[info@cosmoSCM.com]

[Singapore]

[#03-02 Cargo Agent BLDG E, PO BOX 530, Changi Airfreight Center]
[Singapore 918101]